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5월 9일 강의 계획서

첫 제자들을 부르심

B. 부르심의 내용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마르 1,17)

1. "나를 따라오너라."

(2) "나를 따라오너라"를 통해서 본 제자직분(제자도)의 본질

2.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 만일 베드로의 직업이 농부였다면, 또는 목수였다면...

(2) 섭리적 부르심

- 일차적(一次的) 부르심: 하느님의 자녀로 불림 받음
- 이차적(二次的) 부르심: 하늘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불림 받음
- 섭리적 부르심은 이차적 부르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섭리적 부르심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다

(3) 진정한 소명의 특성

- ① 타는 마음이 있는가?
- ② 기쁨을 느끼는가?
 - ◆ 카리스마(χάρισμα)와 카라(χαρά)
- ③ 보람을 갖는가?

C. 부르심에 대한 응답 자세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곧바로 그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르 1,18)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마르 1,20)

1. ‘곧바로/즉시’

- (1) 부르심은 초대이기에 강제성이 없다.
- (2) 강제성이 없기에 모두가 기쁘게 응답하지는 않는다.
- (3)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는?

2. ‘모든 것을 버리고’

- (1) 모든 제자에게 재물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2)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부모가 갖는 마음은....

3. ‘주님의 뒤를 따라감’

- (1) ‘따라가다’가 갖는 특징들

열둘을 임명하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
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
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였다.(마르 3,13-15)

A. 서론적인 설명

1. 예수님은 왜 12을 임명했는가?

2. 열둘, 제자들, 사도들의 구분

- (1) 마르코 복음서는 ‘열둘’이란 단어만 쓴다
- (2) 마태오가 열둘과 열두 제자, 열두 사도를 모두 동일시 해버림
- (3) 예수님께서 열둘을 향해 주신 가르침은 열둘에게만 해당된 가르침인가,
또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된 가르침인가?

B. 열둘을 임명한 목적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은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은 열둘을 선정하시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파견하여 복음을 선언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랬던 것이다"(마르 3,13-15).

1. 두 가지 목적

(1) 열둘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2) 예수님이 열둘을 파견하기 위해서 =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견하기 위해서

2. 첫 번째 목적의 주어("그들이")와 두 번째 목적의 주어("예수님이")가 다른 까닭

3. 비-즉응성(非-卽應性)의 영성

(1) 비-즉응성이란

(2) 비-즉응성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4. 열둘의 구성원

마르 3,13-19

시몬 베드로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

제베대오의 아들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카나니안 시몬

유다 이스카리옷

마태 10,1-4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

제베대오의 아들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세금쟁이 마태오

토마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카나니안 시몬

유다 이스카리옷

루카 6,12-16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열렬당원 시몬

유다 이스카리옷

1.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
2. 타대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
3. 카나니안 시몬과 열렬당원 시몬

'카나니안'(κάναν)과 젤로테스(ζηλωτής)

4. 열둘 구성원의 특징

- ㉠ 지극히 평범한 이들
- ㉡ 다양한 출신 성분들

D. 특정 제자들에 대한 공부

1. 세리 마태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열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마태 10,2-4)

2. 카나니안/열렬당원 시몬

E. 여성제자들과 마리아 막달레나

1. 세 명의 주요 여성 제자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촌락을 옮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함께 다녔다. 그리고 악령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낫게 된 여자들도 더러 있었는데, 곧 귀신 일곱이 떨어져 나간 적이 있는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신하 쿠자의 아내인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 그밖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었다.(루카 8,1-3)

2. 막달라 여자 마리아(마리아 막달레나)

(1) 마리아 막달레나는 정말 창녀인가?

여자들도 떨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계셨을 때에 그분을 따르면서 시증을 들었다.
(마르 15,40-41)

<루카 7,36-50: 죄 많은 여인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 자리 잡으셨다. 마침 그 고을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상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왔다. 그는 예수님 뒤편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더니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발라드렸다.[증략]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의 죄는 용서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함께 식탁에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데 죄까지도 용서해 준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루카 8,1-3: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고을과 촌락을 옮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함께 다녔다. 그리고 악령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낫게 된 여자들도 더러 있었는데, 곧 귀신 일곱이 떨어져 나간 적이 있는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신하 쿠자의 아내인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네 재물로 예수님 일행의 시증을 들고 있었다.

(2) 사도들의 사도인 마리아 막달레나

열들을 파견하심

1. 둘씩 짝지어 파견하심

예수님께서 열들을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마르 6,7)

(1) 파견의 성격은 = 실습 차원

(2) 둘씩 보내는 이유

2. 제자들의 발걸음을 이스라엘로 제한하심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마태 10,5-7)

3.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떠나라고 명하심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찌입지 말라고 이르셨다.(마르 6,8-9)